

#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이주세대 간 지각된 참가 경험 및 하위문화정체성의 차이

이은석  
가천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

## The Difference of Perceived Experiences and Sub-cultural Identity between Overseas Korean' Generations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Eun Surk Yi

Dept. of Exercise Rehabilitation Welfare, Gachon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이주세대에 따라 인지하는 참가경험과 하위문화정체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14개국 36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버전을 이용해 이주세대간 인지된 참가경험과 하위문화정체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은 이주세대별로 인지하는 참가경험에 차이가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들의 경우 이주를 결정한 1세대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성장한 1.5세대들보다 전국체육대회의 참가경험을 차별보다는 이익이 되는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이주세대에 따라 하위문화정체성을 다르게 교섭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성장한 1.5세대들이 한국인이나 한국문화에 가장 가까운 정체성 교섭을 한다.

주제어 : 전국체육대회, 재외동포, 이주세대, 인지된 참가경험, 하위문화정체성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perceived experiences and sub-cultural identity between the overseas Korean' generations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NSF). Data were 360 overseas Koreans from 14 countries who participated in the 2015 NSF.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ived experiences between overseas Korean' generations. More specifically, 1st generation among overseas Koreans has more positive participation experiences and less negative participation experiences than other generation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sub-cultural identity between overseas Korean' generations. Particularly, 1.5 generation has much closer Korean identity than other generations.

**Key Words** :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overseas Koreans, overseas Koreans, perceived experiences, sub-cultural identity

Received 4 June 2017, Revised 3 July 2017  
Accepted 20 July 2017, Published 28 July 2017  
Corresponding Author: Eun Surk Yi (Gachon University)  
Email: yies@gachon.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왔다. 이와 같은 글로벌 이주현상은 이주를 보내는 국가와 받아들이는 국가 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거시적이고 사회 환경적인 제도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민과 새롭게 이주한 이주민 등 모든 개개인들의 정체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1].

이처럼 글로벌 이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숫자가 150만 명에 육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2].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문제보다도 최근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외동포들은 2009년 재외동포 참정권을 허용하면서 더 큰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overseas Koreans) 숫자는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서 앞에서 언급한 국내 외국인주민의 5배를 넘어서고 있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리(Overseas Korean' management)가 국가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3,4].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재외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모국 혹은 거주국의 정체성을 교섭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학과 이주학분야에서 주요 연구주제들이 되어왔다[5].

이러한 이유는 Baldassar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주는 새로운 나라로 정착하면 끝나는 과정으로서 인식되어져왔기 때문에, 이주 후 발생하는 모국방문 경험과 이주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주연구의 일부분으로 개념화 되지 못해왔다” 때문이다[6] 하지만 급격하게 발전된 교통과 통신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들이 모국과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는 그들의 초국적 정체성을 교섭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7].

하지만 재외동포들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이주를 결정한 이주 1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춰왔으며, 특히 이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 혹은 교섭하는지가 연구의 주

관심사였다. 하지만 Ali와 Sonn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주민의 초국적 정체성 교섭은 이주를 결정한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동행한 자녀 그리고 이주 후에 새로운 거주국에서 태어난 자녀들간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8]. 따라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주를 스스로 결정한 이주 1세대들과 그들과 동행한 자녀, 즉 모국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전에 새로운 거주국으로 이주한 1.5세대 그리고 새로운 거주국에서 태어난 2세대 등이 초국적 이주의 환경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르게 교섭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9,10, 11, 12]. 무엇보다도 1.5세대와 2세대는 두 개의 다른 언어, 두 개의 다른 문화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정체성을 교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1세대 이주자들과의 문화적 정체성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13].

1920년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국체육대회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발전되어져 왔으며 다양한 국제 스포츠이벤트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이는데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14]. 특히, 경제발전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1960년대 재외동포를 통해 경제적 원조를 받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초청하면서 전국체육대회에 재외동포들이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 재외동포 전국체전은 참가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현재 17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외동포 전국체육대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민족주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는데 스포츠를 이용하며 발전되어져 왔다[15].

실제로 2005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재외동포들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모국방문을 통해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과 민족문화적 문화일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1]. Chang 등과 장익영은 실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뉴질랜드 동포들의 경우 그들의 전국체전 참가동기가 초국적 정체성 교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5].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스포츠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재외동포의 정체

성과 스포츠의 역할을 대한 연구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무엇보다 이주 세대별의 모국방문을 통한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문화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 세계 17개 국가들로부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를 위해서 모국을 방문한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이주 세대별로 어떻게 지각된 전국체전 참가경험과 그들의 하위문화정체성이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 세대간 지각된 경험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 세대 간 문화정체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이주 세대별 지각된 참가경험과 하위문화정체성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research participant

Sec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14	59.4
	Female	146	40.6
Participation type	Player	192	53.3
	Staff	96	26.7
	Player & staff	30	8.3
	Cheer team.	42	11.7
Generation	1st Generation	250	69.4
	1.5 Generation	75	20.8
	2nd Generation	35	9.8
Current country of residence	Argentina	4 (17)	1.1
	Australia	12 (72)	3.3
	Brasil	4 (6)	1.1
	China	56 (126)	15.6
	England	8 (36)	2.2
	Guam	28 (85)	7.8
	Germany	13 (14)	3.6
	Hong Kong	36 (49)	10.0
	Indonesia	16 (125)	4.4
	Japan	18 (121)	5.0
	New Zealand	44 (96)	12.2
	Philippine	46 (100)	12.8
	Saipan	18 (86)	5.0
	United States	57 (113)	15.8

\* The number of ( ) in the current country is a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of each country in the NSF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5년 강원도 지역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 17개국으로부터 모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재외동포 1,112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1>은 이 연구를 위해서 표집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연구자는 개막식이 개최되기 전날 재외동포선수단 대표자 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자료수집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날짜를 협의하였다. 협의결과 개막식을 제외하고 전체 선수단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없어 부득이하게 개막식이 개최되는 강릉종합운동장에 보조연구자 5명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무선표집방법(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14개국 408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설문 내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무응답이나 이중응답) 48명의 자료를 제외한 360명의 자료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써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3문항, 재외동포 세대와 관련된 1문항,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지각된 경험 7문항, 하위문화정체성 3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재외동포들의 세대는 이주를 결정한 1세대, 이주결정자들과 같이 이주를 한 자녀들, 즉 한국에서 태어나고 거주국에서 성장한 1.5세대 마지막으로 거주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지각된 참가경험은 Gomez가 개발하고 백선아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지각된 경험' 설문지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6,17].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지각된 참가경험은 7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하위문화정체성에 대한 설문지는 Gomez와 Taylor와 Doherty가 사용한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자신의 문화 또는 거주국의 문화와의 일체감을 가지는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16, 18]. 총3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 2.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이 연구의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스포츠사회학 전공교수 및 박사 3인과의 토의를 통해 내용타당도에 대해서 논의, 수정하여 설문문항을 완성하였다. 이후,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방식으로는 주성분분석을 그리고 요인회전방법으로 직각 회전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추출 기준은 초기 고유값 1.0이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α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recognised experiences in the NSF

Question	Positive experience	Negative experience
item 1(welcome)	<b>.851</b>	-.020
item 3(kindness)	<b>.839</b>	-.205
item 6(recognition)	<b>.818</b>	-.059
item 4(fairness)	<b>.715</b>	-.090
item 5(disparagement)	-.090	<b>.851</b>
item 2(ignorance)	-.291	<b>.843</b>
item 7(dislike)	.039	<b>.761</b>
eigenvalue	3.059	1.713
variance(%)	43.701	24.476
accumulation(%)	43.701	68.177
Cronbach'α	.829	.764

<Table 2>는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지각된 참가경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지각된 참가경험은 긍정적 참가경험과 부정적 참가경험의 2개 하위변인이 추출되었다. 먼저 긍정적 참가경험 변인은 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은 .851-.715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참가경험 변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은 .851-.761로 나타나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참가경험에 대한 신뢰도 값은 각각 .829과 .764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설문지로 나타났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ub-culture identity

Question	sub-culture identity
item 1(Proud as Korea)	<b>.788</b>
item 5(Proud of Korean culture)	<b>.786</b>
item 3(Koreanness)	<b>.702</b>
eigenvalue	1.731
variance(%)	57.701
accumulation(%)	57.701
Cronbach'α	.618

<Table 3>은 하위문화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총 5문항으로 구성된 하위문화 정체성변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인으로써 자부심',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한국인으로써의 자각'등 3문항이 하위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변인으로 나 추출되었다. 변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788-.702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값은 .618로 대체로 신뢰할 만한 설문지로 나타났다.

### 2.4 조사절차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보조연구자 총 6명이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96회 전국체육대회의 개막식에 직접 방문하였다. 설문지 배포전에 연구대상들에게 직접 설문 목적과 기입방법을 설명한 후, 전국체전에 참가한 재외동포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 2.5 자료처리방법

연구자는 가장 먼저 회수한 설문지를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중기입 또는 무기입 등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실제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컴퓨터에 개별 입력(Coding)시켰으며, SPSS/PC+ 21.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One-way ANOVA 분석 및 사후검증 분석(sheffe 검증)을 하였다.

## 3. 결과

### 3.1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대에 따른 지각된 참가 경험의 차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대에 따른 지각된 참가경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먼저 지각된 참가경험의 차이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보면 거주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M=1.90)이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성장한 1.5세대(M=2.08)나 이민을 결정한 1세대들(2.30)보다 차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NOVA analysis of perceived participation experiences

variable	Generations	N	M	SD	F	Post-hoc
discrimination	1st(a)	250	2.30	.85	4.708**	c,b<a
	1.5(b)	75	2.08	.82		
	2nd(c)	35	1.90	.67		
benefit	1st(a)	250	3.21	.74	5.225**	b<a<c
	1.5(b)	75	3.01	.99		
	2nd(c)	35	3.62	.91		

다른 한편으로 참가경험에 대한 이익은 재외동포 2세대들(M=3.62)로 1세대(3.21) 그리고 1.5세대(3.01)보다 긍정적인 참가경험을 보이고 있으며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대 간 하위문화정체성의 차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대에 따른 하위문화정체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ANOVA analysis of sub-cultural identity

variable	Generations	N	M	SD	F	Post-hoc
identity	1st(a)	250	4.13	.50	4.763**	c<a,b
	1.5(b)	75	4.28	.59		
	2nd(c)	35	3.95	.70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대에 따른 하위문화정체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1.5세대의 재외동포들(M=4.28)의 하위문화정체성이 한국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주를 결정한 1세대 재외동포(M=4.13), 다음으로 그리고 이주 후 거주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 재외동포들(M=3.95)이 모국인 대한민국의 하위문화정체성에서 가장 낮은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이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들의 이주세대별 특징에 따라 지각된 참가경험과 하위문화정체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이주세대별 특성(이주를 결정한 1세대, 모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주 결정자인 1세대를 따라서 어린나이에 이주를 해 거주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1.5세대 그리고 이주결정자인 1세대들에게서 이주 후 태어난 2세대)에 따라서 그들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참가경험을 인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하위문화정체성을 교섭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은 이주세대에 따라 차별이나 이익과 같은 참가경험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즉, 이주 후 거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외동포 2세대들은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모국으로부터 가장 적게 차별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동포 2세대들의 경우 모국을 방문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모국에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에게 베푸는 여러 가지 환영, 친절함 등에 대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를 결심한 1세대들이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자신들이 세 집단 중 가장 고국으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결과와 상반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오래 머물러 왔는가에 대한 경험이 그들의 인지된 참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고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해 고국에 대한 경험은 물론 새로운 국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왔던 1.5세대들의 경우 자신들의 초국적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경험하는 이익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어 매우 흥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왜, 세대 간 참가경험을 다르게 인지하는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은 이주세대에 따라 자신들이 한국인 혹은 한국문화에 가깝다고

느끼는 하위문화정체성의 정도를 다르게 교섭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세대 재외동포들의 경우 가장 한국문화에 가장 가까운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장익영이 연구한 “재외동포들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와 정체성교섭”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다[15].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재외동포들이 정체성을 교섭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긍정적인 경험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체성보다 모국인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강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재외동포들의 경우 모국을 방문할 때 부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문화에 보다 친밀감을 느끼며 정체성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가까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19,20,21,22]. 따라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경험 중 부정 혹은 긍정적인 경험이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교섭하거나 형성 혹은 재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었다는 것이다[1,23,24,25,26].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1.5세대들이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의 하위문화정체성은 가장 한국인이나 한국문화에 가까웠다. 결국 전국체육대회의 인지된 참가경험과 하위문화정체성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하위문화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알아내는 것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이주세대에 따라 인지하는 참가경험과 하위문화정체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방법과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은 이주세대별로 인지하는 참가경험에 차이가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들의 경우 이주를 결정한 1세대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성장한 1.5세대들보다 전국체육대회의 참가경험을 차별보다는 이익이 되는 경험

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이주세대에 따라 하위문화정체성을 다르게 교섭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성장한 1.5세대들이 한국인이나 한국문화에 가장 가까운 정체성 교섭을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후속연구 수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이주세대에 따라 전국체육대회에 참가를 통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들이 경제추구형 이주와 보다 좋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주형태는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교섭에 중요한 변인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주형태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의 논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참가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집단인 재외동포 2세대들의 하위문화정체성이 그리 한국인이나 한국문화에 가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하위문화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보다 심층적인 질적연구를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I. Y. Chang, M. Sam, & S. Jackson, "Transnationalism, return visits and identity negotiation: South Korean-New Zealanders and Korean National Sport Festival."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52, No.3, pp.314-332. 2017.
- [2] P. Kivisto, & T. Faist, "Beyond a bord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ontemporary immigration." CA: Pine Forge Press, 2010.
- [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 summary of overseas Kore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
- [4] A. Babacan, S. Singh, "Migration, belonging and the nation state." U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0.
- [5] S. Castles, & M. J. Millers,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 world." NY: Palgrave-Macmillan and Guilford Books, 2003.
- [6] L. Baldassar, "Visits home: Migration experiences between Italy and Australia."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01.
- [7] T. Faist, M. Fauser, & E. Reisenauer, "Transnational mig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3.
- [8] L. Ali, C. Sonn, "Constructing identity as a second-generation Cypriot Turkish in Australia: The multi-hyphenated other." *Culture and Psychology*, Vol.16, No.3, pp.416-436, 2010.
- [9] S. Benesch, "Generation 1.5 and its discourses of partiality: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Vol.7, No.3/4, pp.294-311, 2008.
- [10] J. Berry, W. Phinney, J. S., Sam, D. L. P.Vedder,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cross national contex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6.
- [11] S. Chun, "Christian religiosity: A force for assimilation and/or for ethnicity? -generational comparison of the impact of Christian religiosity on assimilation and ethnicity among Korean Americ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e Dame, Indiana 2001.
- [12] M. Y. Danico, "The 1.5 generation: Becoming Korea American in Hawaii."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 [13] O. Oznobishin, J. Kurman, "Parent-child role revers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mmigrant youth in Isra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3, No.3, pp.405-415, 2009.
- [14] M.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Seoul: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10.
- [15] I. Y. Chang, "Overseas Koreans' return visit and transnational identity negotiation: A case study of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Journal of Digital Covergence*, Vol.14, No.10, pp.473-481, 2016.
- [16] E. Gómez, "The ethnicity and public recreation participation (EPRP) model: An assessment of unidimensional and overall fit." *Leisure Sciences*, Vol.28, pp.245-265, 2006.
- [17] S. A. Baik,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lturation and sport participation of foreign migrant workers."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2.
- [18] T. Taylor, & A. Doherty, "Adolescent sport, recreation and physical education: Experiences of recent arrivals to Canada." *Sport, Education and Society*, Vol.10, No.2, pp.211-238, 2005.
- [19] Young-Ae Jung, "A Study on the Educa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2, No.1, pp.15-20, 2011.
- [20] I-O. Jeon, & M-S. Kang, "value of the property on the impact of the Perceived value of accommodation on tourism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10, pp.79-94, 2013.
- [21] S-Y. Han, S-J. Park, & H-J. Lee, "The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the visitor satisfaction, it's antecedents and the modification of images of Korea perceived by Chinese and Russian Tourists after their visits to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 pp.115-125, 2014.
- [22] H-Y Jang, H-J. Park, & S-H. Choe, "Cultural Tourism Product Development Research of Muju Taekwondo Institut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2, pp.351-357, 2016.
- [23] K. Kim, & Ji-Young Park, "Cultural differences impact on the ERP system implementation,"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6, No.2, pp.1-9, 2016.
- [24] Mi-Yang Cha, "Enhancement of SMB Global Competency for Overseas Market Entr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Vol.7, No.1, pp.11-16, 2017.
- [25] Young-Ae Jung, "A Study on the Educa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2, No.1, pp.15-20, 2011.
- [26] M.K Lee, N-B, Kyung, & A. Kang, "The Study of Convergence on Lexical Complexity, Syntax

Complexity, and Correlation among Language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4, pp.219-229, 2017.

이 은 석(Yi, Eun Surk)



- 1993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사)
- 1997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체육석사)
- 2003년 8월 : 한구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이학박사)
- 2005년 3월 ~ 2011년 8월 : 대구한의대학교 실버스포츠산업학과 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가천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운동재활복지, 학제간융합연구
- E-Mail : yies@gachon.ac.kr